

내년 도정 주요 사업 국비 없어 불투명

정부 지원 난색에 버스전용차로 시설사업 위기 4·3복합센터 등도 난항... 道 “국비 절충 노력”

내년도 국비를 반영할 예정이던 주요 사업 가운데 버스전용차로 시설 사업을 비롯한 4·3평화복합센터 조성 등이 미반영 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와 관련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절충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관련 국비는 1조5086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년도 1조4945억원에 견줘 141억원(0.9%) 늘었다. 특히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물론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등 13개 신

규 사업이 성사됐다. 또 계속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제주외항(2단계) 건설 등을 포함해 20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주 4·3복합센터 건립(11억원, 이하 신청예산 생략) ▷버스전용차로 시설사업(46억5000만원) ▷서귀포항 근로복지센터 건립(10억원) ▷추자도 해양관광 낚시공원 조성(22억원) ▷일본 EEZ대체 어장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15억원) 등 5개 주요 사업이 이번 국비 지원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4·3복합센터는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286억원(국비 249, 지방비 37)을 투입해 기획·상설전시

관, 요양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버스전용차로 시설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월산마을~국립박물관(9.0km)과 아라초등학교~달무교차로(1.6km) 구간에 중앙차로제 시설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58억원(국비 159억원, 지방비 299억원)이다. 내년도 사업비는 93억원(국비 46.5억원, 지방비 46.5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유사한 지자체 지원 사례가 없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에 포함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도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행을 통한 중앙 버스전용차로 확대를 추진 방향을 틀어 관련법 개정에도 나서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서귀포항근로자 복지센터사업은

노후화된 복지회관을 연면적 1000㎡에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는 내용이다.

추자도 해양관광 낚시공원 조성사업은 62억원(국비 43억원, 지방비 19억원)을 투자해 낚시교, 인공낚시터, 어촌시설, 해안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일본 EEZ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사업은 330억원(국비 165억원, 지방비 16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어업용 미끼 구입 및 어선 유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미반영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조해 최대한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며 “국회 심의 이전에 적극적인 사업 설명과 사전 절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이름뿐인 위원회 설치 막을까

작년 기준 도 위원회 260개 수 많지만 기능 상실 등 지적 설치 조절 조례 개정안 발의

남립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를 조절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남립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를 적절히 조절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도의 경우 정책 자문 및 심의·평가를 위한 법령·조례상의 위원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제

주도 각종 위원회가 260여개였던 반면, 타 시·도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수가 200개 미만이었다. 이를 통해 제주도 각종 위원회의 수가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 관리 시스템은 미비하거나 계획 실적이 미비하는 등 단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다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의 의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적절한 설치·운영은 관련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명목상으로는 설치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지자체가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서까지 설치된다면 그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은 감소할 것”이라며 “본 조례 개정이 앞으로 도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벤치·가로등 표준디자인 만든다

도, 10개 품목 개발·검증

제주특별자치도는 표준 공공디자인 개발·검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연차별 개발 로드맵(2019-2021년)에 따라 실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편의시설물(벤치·파고라 등)과 도로시설물(벤스·블라드·가로등·보안등 등) 등 총 10개 품목에 대한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통합형 지주·연립사인 및 안내 사인 등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관광시설 안내사인·홍보사인·통합형 지주 및 음수대 등 총 14개 품목에 대한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내년에는 배전함·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및 관광안내소·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등 편의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유색 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제주 환경과 조화되고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 실제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제주형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보급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집체만한 파도 2일 북상하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권에 접어든 가운데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해안에 집체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강회만기자

감귤박람회 전시업체 모집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20년 온라인 제주감귤박람회’ 운영과 관련, 감귤홍보관 및 감귤가공품 온라인 전시에 참가할 업체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인단체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고유등록증)을 소유한 감귤가공업체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박람회 홈페이지 전시 참여 안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은 ▷1순위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농업인단체 ▷2순위 감귤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시품목 참가 신청자 ▷3순위 감귤 비관련업체 순이다. 백금탁기자

“비상품 감귤 유통 안돼”... 서귀포시 민간 단속반 가동

극조생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민간인 감귤유통지도단속반이 꾸려진다.

서귀포시는 올해 감귤조수입 8000억원 달성을 위해 추석절을 노린 달익은 감귤 출하 등 극조생 비상품감귤 유통차단 사전 차단에 가능한 행

정력을 총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오렌지 수입물량이 감소한데다 타지방 과일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영향으로 감귤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귀포시는 우선 올해 민간인 감귤유통지도단속 요원 16명을 채용, 8

일부터 단속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상품 감귤을 상습적으로 출하하는 선과장을 발본 색원하기 위해서다. 또 올해부터 10월 10일 이전에 출하하는 감귤에 대해서는 8브릭스 미만의 비상품 감귤이 출하되지 못하도록 사전 당도검사를 시범 추진한다. 사전검사 미이행 비상품감귤 유통 농가·선과장에 대해서 각종 보조사업 폐널티를 부과한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드론을 활용 해 극조생감귤 수확이 진행 중인 과

수원을 조사, 후속 여부와 이를 유통하는 선과장을 추적·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 적발 즉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상품 감귤 출하 2회 이상 적발 시 품질검사원을 해촉해 선과장 운영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비상품감귤 유통을 사전 차단에 감귤 농가들이 역대 최고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영준기자 yihyeon@ihalla.com

제주 환경보존 사진공모 이달 7일까지 작품 접수

제주환경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사진으로 소통하는 ‘제주 기후변화 및 환경보존 사진공모전’이 열린다.

제주시는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홍순병)가 주최하고 제주시가 후원하는 사진 공모전을 이달 1~7일 진행한다

공모전은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 2개 분야로 나뉘 ▷제주의 기후변화 모습 및 개선방안 ▷기후변화 영향과 실태, 대응방안 ▷제주 자연환경 모

습, 환경보존의 중요성 ▷제주환경의 지속가능발전 방안 등으로 제주시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이면 된다.

응모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1인 5점 이내의 작품(3MB 이상 .jpg파일)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웹하드(http://www.webhard.co.kr)에 탑재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진은 이메일(jjcsd@daum.net)로도 접수 가능하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725-0210)나 제주시 환경관리과(728-2193)로 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濟州) 리모델링
 辛(辛) 一(一) 祚(祚)

누수방지 가시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2020년 9월 장애인보청기 가격고시제 시행안내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샵출동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보청기 가격의 기쁨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귀속형 보청기
430만 → 150만! 860만 → 270만!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정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 **제라몬**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공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문,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및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종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 라 조 생 1,3년생
 감 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 전 온 주 1년생
 천 해 향 4,5년생
 향 금 향 4,5년생
 유 라 실 생 3,4년생
 탕 자 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